

종합

굿바이! 구자범

광주시향 고별 무대...1900여 관객 기립박수

격정적으로 움직이던 그의 지휘봉이 멈추고 동시에 폭풍처럼 몰아치던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끝났다. 잠시 침묵, 땀에 흠뻑 젖은 지휘자가 객석을 향해 돌아서자, 우레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관객은 이미 기립한 상태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무대의 지휘자와 객석의 관객들이 ‘마음으로 건넌 말은 아마도 이것이지 않았을까.

광주시립교향악단 구자범 상임지휘자의 고별 연주회가 열린 18일 광주문예회관은 뿌듯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이날 공연 티켓 1800장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미처 표를 구입하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입석표 100여장을 판매했다.

“박쥐” 서곡, 송영훈이 함께 한 엘가의 ‘첼로협주곡’에 이어 구자범 지휘자가 전한 ‘마지막 선물’은 드보르자의 ‘신세례로부터’였다.

연주 후 구자범 지휘자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계속되는 커튼콜, 그는 정거연주회 때 거의 앙코르곡을 연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그가 고른 곡은 포레의 ‘파반느’. 단원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잔잔히 지휘를 하던 그는 곡의 중간쯤 지휘대에서 내려와 무대 뒤로 사라졌다. “광주 시향의



18일 광주에서 마지막 연주회를 가진 구자범 상임지휘자. 연합뉴스

연주는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듯했다.

지난 2009년 구 지휘자 취임 후 시향은 시민들 속으로 들어왔다.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시향이지만 시민들과 이처럼

가깝게 호흡하는 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공연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광주시향 공연장은 학생 관객들이 절반에 육박했다. 매년 학생 단체 300여명의 티켓을 팔았고, 평균 관객은 600~700명 수준에 불과했다.

구 지휘자 취임 후 자발적 관객들이 객석을 채웠다. 취임연주회를 비롯해 슈트라우스의 밤 등 6편의 연주회가 매진을 기록했고, 매회 1000여명이 넘는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 수익 역시 3배 이상 뛰었다. 재야음악회, 5·18 30주년을 맞아 518명이 함께 공연한 말러의 ‘부활’ 공연, 광주교도소 등에서 열린 찾아가는 음악회 등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관객 김정아(42)씨는 “음악을 참 좋아했지만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있었는데 구 지휘자 덕에 광주시향을 다시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향의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다”고 말했다.

매년 연주회 때마다 공연장을 찾았던 구 지휘자의 부모는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광주시향의 행보는 계속된다. 크리스티안 루트비히는 4월 1일 취임 연주를 통해 광주시향의 ‘또 다른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도심 ‘테마 로드’ 조성

시 '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안' 수립

광주에 오월길과 센트럴로드, 리버워크 등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테마로드(Theme Road)’가 들어선다.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유니버시아드 스포츠파크, 대학촌 등 11곳이 관광명사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오는 2015년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안’을 수립, 관광시책 자문기관인 광주관광진흥협의회에 21일 보고한다.

“느끼고 싶은 문화예술 관광도시 창조”를 슬로건으로 삼아 광주발전연구원 이 수립한 이 계획안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하위 권역별 계획으로,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대상 기간은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주를 호남권 국제관광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권과 중의문화공원, 사직·광주공원 및 양림동 역사마을, 어등산관광단지, 우치공원 및 패밀리랜드, 지산유원지, 유니버시아드 스포츠파크, 첨단과학산단을 도시관광 거점명소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5·18사적지와 동명동 미술공예 창작촌, 전남대·조선대 대학촌 등도

도시관광 거점명소 개발후보지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시관광의 핵심은 ‘길’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테마로드’를 조성하도록 제안했다.

금남로와 무진로 일대 문화예술이 활기찬 ‘센트럴 로드’, 광주역~문화전당 간 녹지와 공방, 쇼펜하우어가 들어선 ‘그린 로드’, 광주천 일대 ‘리버워크(River Walk) 로드’, 무등산권과 영산강권 호남유화과의 선형을 가리리랜드, 지산유원지, 유니버시아드 스포츠파크, 첨단과학산단을 도시관광 거점명소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도시 골목을 걸어서 여행하는 ‘보행관광 길’, 문화유적과 연계된 ‘그린투어 로드’ 조성과 함께 기존에 운

영되어 오던 시티투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북 공동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광역 유치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에 광주를 호남권 관광의 중심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며 “계획안에 거론된 각각의 방안들은 최근 구성된 ‘광주시 관광경영력 강화 원탁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억대 부농’ 2000명 넘어

지난해 576명 추가...10억 이상도 21명 이나

전남지역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농이 크게 늘어나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업인은 20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인 2009년 1438명보다 무려 576명(40%)이나 늘어난 것으로, 분야별로는 축산이 절반이 넘는 54.4%(1095명)로 가장 많았고 식량 작물과 채소분야가 각 19.2%(387명)와 7.9%(159명), 가공·유통분야 7.2%(145명), 과수 81명, 특용작물 63명, 임업 48명, 화훼 36

명 순이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36.5%(1644명),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351명, 1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업인도 21명이나 됐다.

시군별로 나주시가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진 220명, 무안 187

명, 해남 146명, 장흥 140명, 고흥 126명, 보성 108명, 함평 106명 등이다.

이처럼 고소득 농가가 크게 증가한 것은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품목별 조직화·규모화, 1시간 1유통회사 육성정책 등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

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고소득 농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해 기존 농림사업과 연계한 농가별 맞춤형 지원과 경영 마인드 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공사례를 발굴해 농정 현장에 전파하고 잠재 고소득농가 2500여명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고소득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고소득 농업인 1만명 육성을 위해 기존 농림사업과 연계한 농가별 맞춤형 지원과 경영 마인드 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공사례를 발굴해 농정 현장에 전파하고 잠재 고소득농가 2500여명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고소득농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종두



봄이 온들 뭘 할까나?!

방통위 수신료 인상 광고 축소 여부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1000원을 올리되 인상분을 상업 재원 축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채택했다.

‘상업 재원’은 사실상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검토의견서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광고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실무진이 낸 보고서와 전날 회의에서 김인규 KBS 사장이 낸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여 검토의견서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소 구제역 잠힌듯...18일째 발생안해

2차 백신접종 98.4%

구제역이 발생한 지 20일로 8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소의 경우 지난 2일 이후 양성 판정이 없어 구제역이 진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00번째 구제역 의심사례로 신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가의 한우가 검사결과 구제역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소의 경우 지난 2일 경북 울진 농가의 한우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뒤 2차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18일째 소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소는 경북(97.8%)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2차 백신접종이 완료돼 전국적으로 98.4%의 진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는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항체가 형성된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소의 경우 18일째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제역이 사실상 진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대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패지도 현재까지 2차 백신 접종이 66.1% 진행됐으며 이달 말까지는 2차 백신접종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3월에는 구제역이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운태시장 R&D 협력 日·中 방문

금형산업 투자설명회

강운태 광주시장 R&D(연구·개발) 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다.

강 시장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지원기관과 대학, 기업인 등 30여명과 함께 일본의 기타큐슈, 나고야, 중국 대안, 베이징을 방문해 광주 R&D 특구와 관련한 한·중·일 삼각 벨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강 시장은 기타큐슈에서는 학술연구단지 간담회와 MOU체결을 통해 광주 R&D특구의 발전적 기틀을 다지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



고, 나고야에서는 금형 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강 시장은 이어 중국 다롄과 포광저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베이징에서는 관상업과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R&D특구를 국내형이 아닌 개방형 특구로 조성, 동북아의 대표적인 R&D특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한·중·일 3국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재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1.03.03.(목) ~ 2011.03.08.(화) / (총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구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건축감독원, 자선운영관리원 등)
학·석사 학력자	사단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기관 중 개발업무 관련 부서,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료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이명규 교수 062-670-2421
 •부 원 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교육과학기술부(2010-1)회공인발음

자격등급별	개강 일시 (과정별)	수업기간 (24주)
1. 한자지도사 3급	• 토요일오전반: 2011.3.19(토)09:30 • 월·목 오후반: 2011.3.21(월)14:00 • 월·목 야간반: 2011.3.21(월)18:20	2011.8.27(98시간) 2011.4.28(96시간) 2011.4.28(96시간)
2. 한문지도사 2급	• 월·목 오전반: 2011.2.21(월)09:30 ※ 2011.3.31(목) 추가모집	2011.4.11(96시간)
3. 한문지도사 1급	• 금요일 오전반: 2011.3.18(금)09:30	2011.8.26(96시간)
4. 한문지도사 특급(훈장)	• 토요일 오후반: 2011.3.26 수료 ※ 2011.9.2(토) 개강 예정	36시간 2011.9.10(금)96시간

*과정별 지도교수 내분이 명강의 합니다.

● 모집기간 : 2011. 02. 18 ~ 2011. 03. 05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5명
 ● 수강료 : ₩350,000 (능력 : 175375-56-065137)
 ● 자격의 활용
 ■ 방과후 학교 강사 ■ 학원설립 및 강사 ■ 각종 사회교육기관 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자격취득
 국·한문 혼용급수(고급~중급) 자격취득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 366-9666, 367-8666, 원장 011-607-6292
 ▶ 접수처 : 광주·서구·농성동 633-28

국가공인자격관리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연수원

12년 국영영능력평가시험 완벽준비
IBT 방식 평가는 화상질판방식인
입구정영어가 좋다

원어민 선생님과 1:1 레딩 · 회화를 숙련한다
한국인 선생님이 1:1 독해 · 문법 공부를 한다

결론은 多讀, 多聽, 多聽이다
수강료는 월 100,000원 입니다.

선생님이 회화가되면 학생은 당연히 유창할수있다!

- 초·중·고 영어관련선생님 영어강의 도와드립니다
- 교수님, 예비교수님 영어강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가이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원어민 1:1
입구정영어회화 · 리딩
ah-english.com | 070-7433-0594

국비지원/일반인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가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3월 [5일(토) 주말반] 대개강
[7일(월) 주·야간반]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장]
www.egosico.kr

★농업인·축산업·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충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박사, 윤종아(전)품관원, 초대농촌진흥회장, 손승운, 송상호, 전창훈교수진]

◆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전남농업전문원 0226-5050
위치 :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길, 광주서역(전남)역(충북경찰서사) 전남여고 쪽